

## 서양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연구\*

정인철\*\*

### A Cartographic Study on the Earthly Paradise Represented in the Medieval Mappaemundi\*

Jung In-Chul\*\*

**요약** : 서양의 중세 세계지도는 중세의 관점과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서양의 중세 세계지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지리학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세계를 표현하였다. 지도에 표출된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충실하였다. 중세 세계지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서양의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리적 특징과 지도학적 표현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중세 학자들의 의견을 고찰하였다. 둘째, 지상낙원의 지도적 표현 방법에 대해 지리적 위치와 표현 기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시대에 따른 지리적 위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넷째, 14세기 이후 지상낙원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원인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중세 세계지도, 아우구스티누스, 창세기, 에덴동산, 기독교 세계관

**Abstract** : The achievements of the medieval mappaemundi should be evaluated on their own terms and in the context of their purpose. Medieval mappaemundi expressed christian world view which reflected Augustinian theology. These Christian world view and Greek and Roman classical geography were combined to form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medieval mappaemundi. These maps had a function to organize physical space according to religious principles.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world as a temporal phenomenon, derived from the simultaneous creation of time and space as described in St. Augustin's theology was represented in these map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rthly paradise expressed in medieval mappaemundi and their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For this, firstly, we reviewed medieval Christian scholars' opinions on earthly paradise. Secondly, centered on geographic location and representation method, we examined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eval paradise mapping, Thirdly, we considered the shift of paradise according to chronological change. Fourthly, we examined the reason why earthly paradise disappeared from world map after fourteenth century.

**Key Words** : Medieval Mappaemundi, St. Augustine, Genesis, Garden of Eden, Christian World View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 지원과제에 의해 수행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 1. 서론

지도는 시대의 산물로, 한 시대의 종교관과 세계관의 표출이며, 국가 형성과 유지의 도구이기도 하다. 지표 사상을 모두 선택하여 지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지도에서도 지도 제작자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사상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 지도제작자의 주관은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세 세계지도는 주관 개입의 정도가 아니라 지도 전체가 종교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세계를 다시 창출한 것이다. 즉 지도는 존재하는 세계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Beazley, 1899).

에덴동산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난 이후, 신이 천사의 일종인 그룹(cherubim)<sup>1)</sup>들과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여 다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곳이다(『창세기』 2장과 3장). 기독교에서는 낙원을 지상낙원(terrestrial paradise)과 하늘의 낙원(heavenly paradise)으로 구분하는데, 에덴동산(Garden of Eden)은 지상낙원에 해당한다.<sup>2)</sup>

지도를 이용한 세계 창출의 대표적인 예는 이 지상낙원을 지도상에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상낙원을 지도화한 중세 세계 지도를 오늘날의 지도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상징의 세계와 현실의 진리를 혼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세는 최상의 형이상학적 시대이자 동시에 기호학적 시대였다. 그 어느 때보다 조형예술이 발달했고 상징과 그림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이 세계 전체가 곧 하나의 상징이요 기호였던 것이다(강영안, 1995). 중세 세계지도는 이러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말세의 징조인 곱(Gog)과 마곡(Magog)<sup>3)</sup>, 바벨탑 등 각종 성경의 사건들과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의 기둥(Colums of Hercules)<sup>4)</sup>과 관련한 상징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흔히 “고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 말한다. 고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당대의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문헌 해석을 위한 언어의 문제와 자료 수집의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헤르도투스(Herodotus, 484-428 B.C.)가 그의 저서 『역사』에서 이미 언급한 TO 지도를 기독교가 창안한 것으로 일부 지도학 개론서에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sup>5)</sup>

본 연구는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리적 특징과 지도학적 표현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세인들이 세계지도에 지상낙원을 그리게 된 사상적 배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사상은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 의존하는데,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30)와 에프라엠(St. Ephraem the Syrian, 306-373), 비드(The Venerable Bede, 672-735), 이시도루스(Isidore of Seville, 560-636)의 저서를 참조하였으며, 스콜라 철학자의 문헌은 아퀴나스(Sanctus Thomas Aquinas, 1224/25-1274)의 신학대전을 참조하였다.

둘째, 에덴동산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은 신학이 결정하지만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적 배경 지식에 의존한다. 따라서 중세인들의 지리적 지식 파악을 위해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 필로(Philo of Alexandria, B. C. 20-A. D. 56),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37-101), 그리고 오로시우스(Paulus Orosius, 385-420)의 저서를 참조하였다.

셋째, 중세 세계지도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을 언급한 다음,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 중세 세계지도를 규정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도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00년에서 1459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한정하기로 한다(Woodward, 1987)<sup>6)</sup>. 그러나 지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제작된 지도도 언급하였다.

넷째, 시대에 따른 지상낙원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에 위치한 지상낙원이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14세기 이후 지상낙원이 점차적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 배경과 이후의 지상낙원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

## 2. 지상낙원의 지리적 특성

### 1) 지상낙원에 대한 지리적 의문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에 대해 구약성서의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에덴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주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흘러와 에덴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룬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Pishon)인데, 금이 나는 하빌라(Havilah)<sup>7)</sup> 온 땅을 돌아서 흐르는데,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으며 향료와 보석이 그곳에서 생산된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Gihon)인데 구스(Cush)<sup>8)</sup> 온 땅을 돌아서 흐른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히데겔 Tigris)로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Euphrates)이다. … 중략 …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까지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창세기』 표준새번역 2장 8-14절, 3장 22-24절).

이상의 성서 구절을 바탕으로 한 지상낙원의 지리적 특성과 해석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 논쟁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에덴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고향을 지칭하는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오리게네스(Origen of Alexandria, 185-254)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석파(Alexandrian school of exegesis)는

『창세기』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지상낙원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350-428)가 속한 안디옥 학파(school of Antioch)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된 에덴동산은 당연히 실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학파의 논쟁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지만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종결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유적 방법과 문자적 방법을 모두 이용해 성서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의 저서 『창세에 관하여: 마니교를 논박함(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에서는 『창세기』의 비유적 해석을 강조하였으며, 또 다른 저서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 on Genesis)』에서는 『창세기』를 자구 그대로 믿고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oland and Teske, 1991). 즉 그의 주장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동산은 역사적으로 실재했으며 또 인간의 구속사에서도 비유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에덴동산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에덴동산의 위치와 에덴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실제로 지구상의 어느 강에 해당하며 그 유로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에 관한 것이다. 에덴동산의 위치는 『창세기』 2장 8절에 동쪽에 위치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동쪽이 어디냐는 것이다. 이 동쪽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학자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에덴동산의 지도상의 위치 역시 달라진다.

세 번째 논쟁은 에덴동산이 실재한다면 현재는 어떤 모습이며 그곳에 누가 거주하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접근이 금지되었으므로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Elijah, 『열왕기하』 2장 11절)와 에녹(Enoch, 『창세기』 5장 24절)이 이곳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였다.

### 2) 문헌에 나타난 지상낙원의 지리적 표현

중세를 대표하는 두 철학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과,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인데, 앞의 성경구절을 근거로 한 지상낙원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부들은 에덴동산에 대한 『창세기』 2장의 묘사에 근거하여 낙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동쪽이라는 방향과 네 강의 발원지와 유로, 그리고 낙원의 온화한 기후에 대한 언급이다. 또 한 가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낙원이 『창세기』 7장에 언급되는 노아의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네 강의 유로는 낙원의 평면좌표 설정에 그리고 홍수로부터의 피해 여부는 수직 좌표의 설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을 비손(Pishon), 기혼(Gihon), 티그리스(Tigris), 유프라테스(Euphrates)의 네 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경우는 명확하지만, 비손과 기혼의 경우는 강의 명칭만으로는 해당하는 강을 찾을 수 없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서기 100년경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의견인 비손이 갠지스 강, 그리고 기혼이 나일 강이라는 해석(Whiston, 1987)을 받아들인데, 그의 견해를 180년에서 200년경에 활약한 테오빌로(Theophilus of Antioch), 이레나우스(Irenaeus of Lyons) 등과 같은 초대 교부들이 그의 추정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의견도 존재하는데 초대 교부 에프라임은 다른 교부들과 달리 낙원에서 발원하는 네 강이 나일 강, 다뉴브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라 생각했으며, 낙원 주위에서 강이 지하로 스며들어 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 물들이 지표에서 다시 솟아나 흐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낙원이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며, 세계를 둘러싸고 있어서 땅과 바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낙원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필로스토르기우스(Philostorgius, 368-433)는 낙원이 동쪽의 적도상에 위치하며, 낙원에서 발원한 네 강은 모두 지하로 스며들어 육상으로 다시 흐른다고 생각하였다(Delumeau, 2000).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요세푸스의 의견을 따라 기혼이 나일 강이며 비손이 갠지스 강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Roland and Teske, 1991), 대체적으로 기혼은 나일 강, 비손은 갠지스 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세의 관례이다.<sup>9)</sup> 그러나 여전히 중세 천년동안 많은 학자들이 기혼과 비손을 요세푸스와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나일 강의 유로는 외쿠메네(oikumene)의 범위, 아프리카의 크기와 형태와 함께 중세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Santarem, 1849; Crawford, 1949).

7세기 서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때 이시도루스는 백과사전인 『어원학(etymologies)』 14장에서 낙원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Throop, 2005).

낙원은 동쪽에 위치한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 불리는 데 이는 그리스 어로는 기쁨이다. 이 동산은 모든 종류의 나무와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 추위도 더위도 없다. 공기는 온화하다. 그 중간에 샘이 있어서 낙원 전체에 물을 공급하며 이 샘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한다. 원죄 이후 인간이 이곳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cherubim)들로 지키게 하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이시도루스는 『창세기』에 기록된 지상낙원의 특성을 그대로 그의 저서에서 정리하였을 따름이지만 그의 『어원학』은 중세 수백 년에 걸쳐 재출간될 정도로 중세의 지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견해를 후대의 지도제작자들은 낙원 표현에 지속적으로 이용한다. 이시도루스의 영향은 자연에 대한 백과사전인 『De Universo』를 집필한 마우루스(Rabanus Maurus, 780-856)에게 이어진다. 그는 “지구는 구의 형태이며,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땅인 외쿠메네는 대양에 둘러싸여 있는데, 낙원은 극동 지역에 위치하며 기후는 온화하다.”라고 기술하였다(Santarem, 1849).

비드 역시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지상낙원을 교회와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창세기』에 기록된 지구 그대로 낙원의 존재를 받아들였다(Kendall, 2008). 9세기에 게바(Moses Bar Cephas)는 낙원이 동쪽에 있으며, 대양 건너에 존재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는 낙원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나 달의 영역(lunar sphere)에 속할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네 강이 그런 높이에서부터 지구에 도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Duncan, 1972).

12세기의 성 빅토르의 위그(Hugh of St. Victor, 1096-1141)는 그의 우주지 『De situ terrarum』에서 그리스 지리학자들의 의견을 반복하는 한편, 낙원에 대해서는 마우루스의 의견을 그대로 채용한다. 즉 낙원을 아시아에 위치시키고 낙원은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공기는 항상 온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12세기 파리 주교인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 1100-1160)는 『명제집(Sententiae)』에서 역시 에텐동산이 동쪽에 달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며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Scafi, 2006).

아퀴나스는 이러한 중세 사상가들의 생각을 집대성하여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1부의 질문 102에서 지상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http://www.newadvent.org/summa/1102.htm).

첫째, 낙원이 실재하는 장소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면 영적인 은유에 불과한가라는 의문에 대해 영적이면서도 실재하는 장소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13권 21장을 인용한다.

둘째, 낙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시도루스의 『어원학』 14장 3절을 인용하여 낙원은 동쪽에 있다고 명시했으며, 동쪽에 위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쪽이 지구 상에서 가장 좋은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낙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며, 낙원에서 발원한 강이 지하로 스며들어 솟아나는 장소 역시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낙원은 산맥이나 바다,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지역에 의해 차단되어 인간이 건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낙원은 은총으로 불멸 상태에 있던 무죄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장소로, 온화한 기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이재룡·이동익·조규만, 1995). 그는 온화한 기후를 근거로 낙원이 적도상에 위치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당시에는 적도상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퀴나스는 적도 지역은 태양에 가까워 열 때문에 인간이 살수가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를 배격한다.<sup>10)</sup>

다섯째, 낙원의 위치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했지만, 달의 높이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곳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낙원에 에녹과 엘리아가 살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의 지상낙원에 대한 정리는 당대의 정통 신학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세의 낙원관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규정한 낙원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것은 당대의 철학 주류인 스콜라 철학의 학문적 경향에 의한 것이다. 서기 6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성행했던 이 학문적 사조는 교부들의 주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전의 교부들의 주장을 되풀이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김진태, 2003). 이러한 관점에서 아퀴나스 역시 계속 아우구스티누스, 비드, 이시도루스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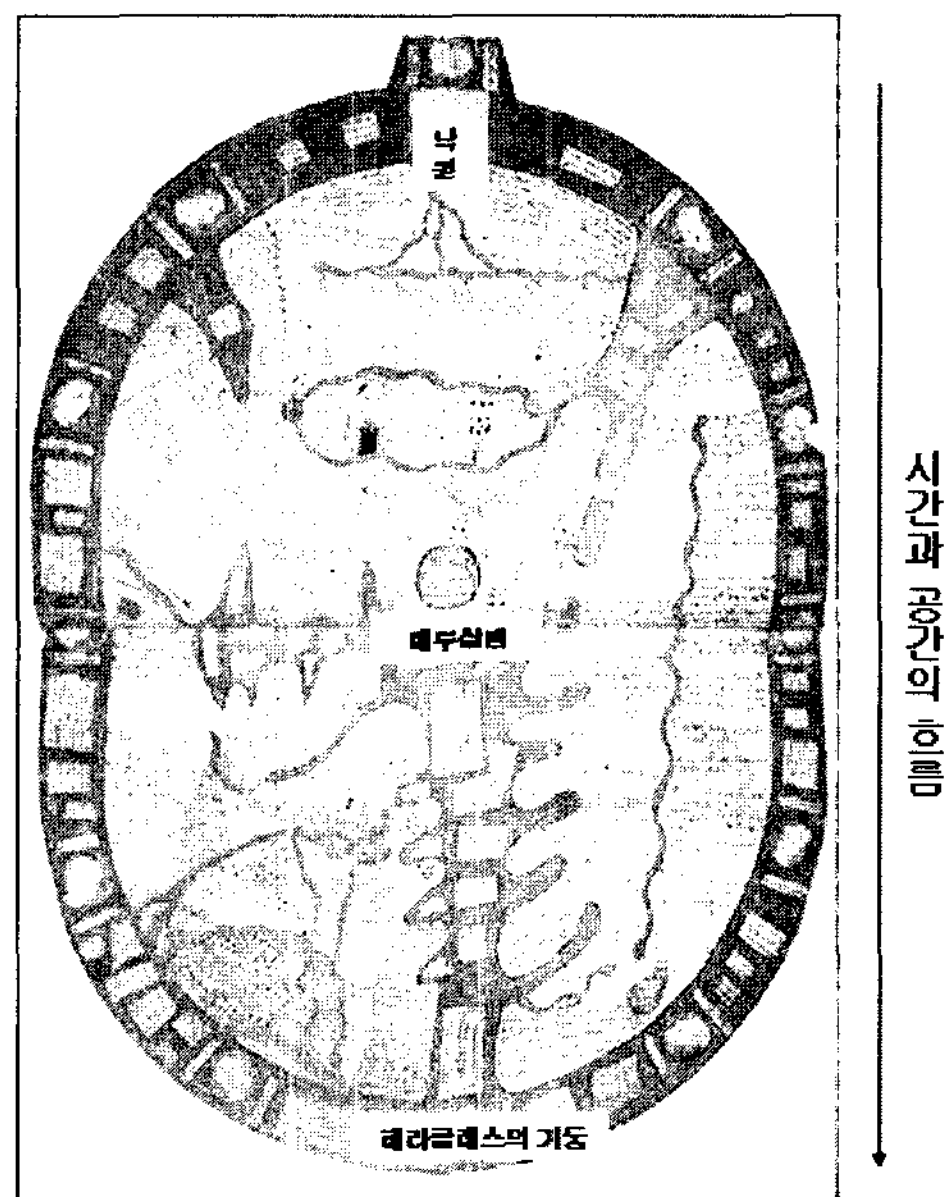


그림 1 『Higden 지도』(1350)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  
 자료: Harris(2002), 수정·편집

속되는 것은 아니며 중세후반과 르네상스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예가 단테(Alighier Dante, 1265-1321)의 낙원관이다. 그는 『신곡』의 연옥편에서 낙원이 예루살렘의 대척점인 남반구에 존재한 연옥산(Mount of Purgatory)의 정상에 있는데 고도는 대략 달의 높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한다(김운찬, 2007).

### 3. 중세 세계지도의 지상낙원

중세인들은 지상낙원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의 영향이 워낙 커서 지상낙원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으며, 이 믿음에 근거하여 지상낙원의 지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지도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도는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이다. 즉 지도 제작에는 과학적인 원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 작업은 사회적 행위로 지도 제작자의 문화와 신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McKinzie, 1985). 중세의 지도 제작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신학이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신학이 공간과 시간을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중세의 시간과 공간이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중세 세계지도와 기독교 세계관

중세의 기독교 세계지도는 이 땅에 있는 '신의 도성'에서 천상의 '신의 도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Terkla, 2004). 또한 중세 세계지도는 세계관의 표상으로 이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성서에 의존한다(Wright, 1965). 따라서 중세의 지도를 현대 지도학적인 관점인 정확성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중세 지도의 기능과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세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전통과 기독교 사상이 혼재된 시기로 기본적인 틀은 기독교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리스와 로마 전통에 의지한다.

예를 들어 구원관은 기독교 신앙에 의존하지만 의술은 점성학에 의존하고 있었다. 기독교와 그리스·로마의 신화적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는 위계를 달리하는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박지형, 1996). 중세 세계지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지속된다. 즉 기본적인 지도의 구조는 성경에 의지하지만 표현의 일부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내용과 관련된 상징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말의 표현으로 종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sup>11)</sup>으로 표현된다. 또한 지도의 세부적인 내용 상당 부분은 전설이나 개인의 상상력에 의지하여 그려지기도 하였다.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에 대한 지리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세계지도의 제작이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을 문헌 정보에 의해 근거하여 지도상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미지의 땅을 규정하고 지도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규정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이브가 거주하던 에덴동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로 정점을 맞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인류의 종말이 도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성경의 각 책들이 배열된 순서와 동일한데 인류의 역사는 천지창조가 일어난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받은 신자들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한 『요한계시록』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다.<sup>12)</sup>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중세 세계지도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하나의 지도에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모두 지도화하였다. 이것을 오늘날의 지리정보체계 용어로 변환하면 각 시대의 레이어(layer)를 분리하여 지도화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화면상에 보이게(turn on)한 다음 이를 지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Higden 지도』(1350)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 동쪽에는 낙원, 중앙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서쪽 지브롤터 해협<sup>13)</sup>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표시하였는데, 이 상징들이 위치한 순서는 시간의 흐름과 일치한다.<sup>14)</sup>

둘째, 인간 역사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에 관하여: 마니교를 논박함』에서 육일간의 천지창조를 모형

으로 하여 ①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시대, ②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시대 ③ 아브라함에서 다윗 사이의 시대 ④ 다윗에서 바빌론 유수까지의 시대 ⑤ 바빌론 유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시대 ⑥ 그리스도의 탄생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여섯 시대로 구분하였다.<sup>15)</sup> 이 시대 구분을 중세 신학자들이 받아들였으므로 중세지도 제작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시대의 주요 사건을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세계지도에서 종교와 역사, 지리가 일치하는 것이다. 중세 세계지도가 이렇게 세계와 시간의 전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그림 1). 그는 인간은 지상의 낙원에서 창조되었으며, 세계는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상의 창조와 시간의 창조가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신의 도성』<sup>11</sup>편에서 주장한다(성염, 2004). 즉 피조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셋째, 인간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큰 상징으로 표기하였다. 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중요성을 장소간의 거리보다 중요시하여 지도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소들 간의 인접성(contiguity)만 유지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왜상지도(cartogram)의 제작원리와 유사하다. 즉 중세 세계지도는 장소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 관계에 의한 윤곽(configuration)에 의해 장소를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속성의 중요성이 장소의 위치를 결정한 것이다.<sup>16)</sup>

넷째,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동쪽을 성스러운 방향으로 생각하여 동쪽이 지도의 위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는 “신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고 명시하였으며,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는 “신이 예루살렘 맞은 편 동쪽, 올리브 산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라 명시하여 동쪽이 기독교에서 거룩한 방향임을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덴동산이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쪽은 성스러운 방향이었다. 이렇게 동쪽을 신성시하여 중세의 많은 교회에서는 동쪽을 향해 신도들이 앉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였다(Gordon, 1971).<sup>17)</sup>

다섯째, TO 지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전통에 의한 세계 지도의 표현 양식이지만, 중세 세계지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을 구분하여 지도화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Shem), 함(Ham), 야벳(Japhet)의 이름을 텍스트로 기재하였다.<sup>18)</sup>

## 2) 중세 세계지도의 지상낙원 표현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이 지도 상에 표기된 방법을 지도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1) 지상낙원의 위치

중세 세계지도에 나타난 낙원의 위치 표현은 크게 동쪽에 위치한 대양 너머의 인간이 갈 수 없는 내륙에 표현한 경우, 인도 동쪽의 섬으로 표기한 경우, 인도 동쪽의 내륙에 표기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6세기 인도를 여행한 코스마스(Cosmas Indicopleustes)는 그리스 전통을 받아 들여 외쿠메네가 모두 대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대양을 지나면 또 다른 대륙(further land)이 있는데 여기에 에덴동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Dilke, 1987). 그래서 그는 동쪽에 있는 대양 너머의 대륙의 모습으로 낙원을 표시하였다(그림 2). 그는 당대의 전형적인 세계지도와는 달리 남쪽 또는 북쪽을 위에 두는 사라센 지도의 전통을 받아들여 북쪽을 위로 정치하였으며, 인간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의 형태를 네모 모양으로 형상화하였다. 그가 이렇게 외쿠메네의 형태를 네모라고 생각한 이유는 세계가 성막(Tabernacle)<sup>19)</sup>의 이미지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Kitamura, 1988).

그는 대양 너머의 대륙에 대해 원죄 이후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했는데, 경작하기가 어렵고 야생동물이 많아 척박한 땅이라고 주장했다. 아담의 자손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까지 이곳에 거주하다가 대홍수시 방주를 타고 150일을 걸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도달했으며, 이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주장하였다(Kominko,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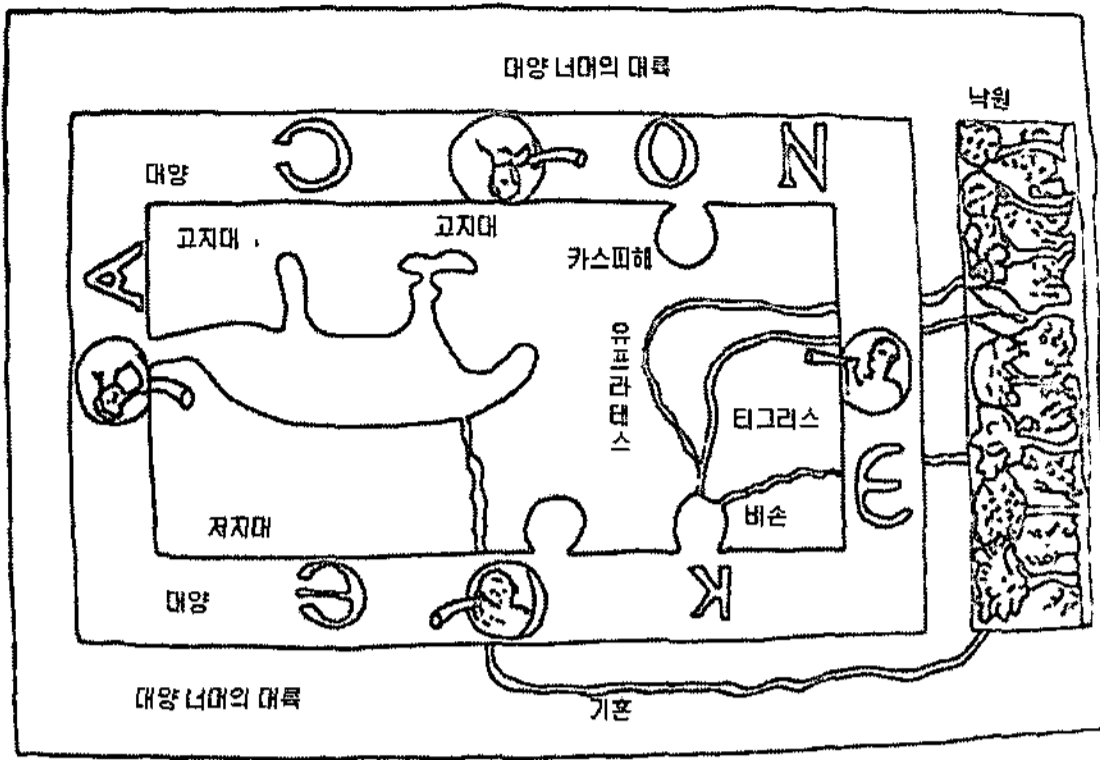


그림 2. 『코스마스 지도』(6세기)

자료: Kitamura(1988), 수정·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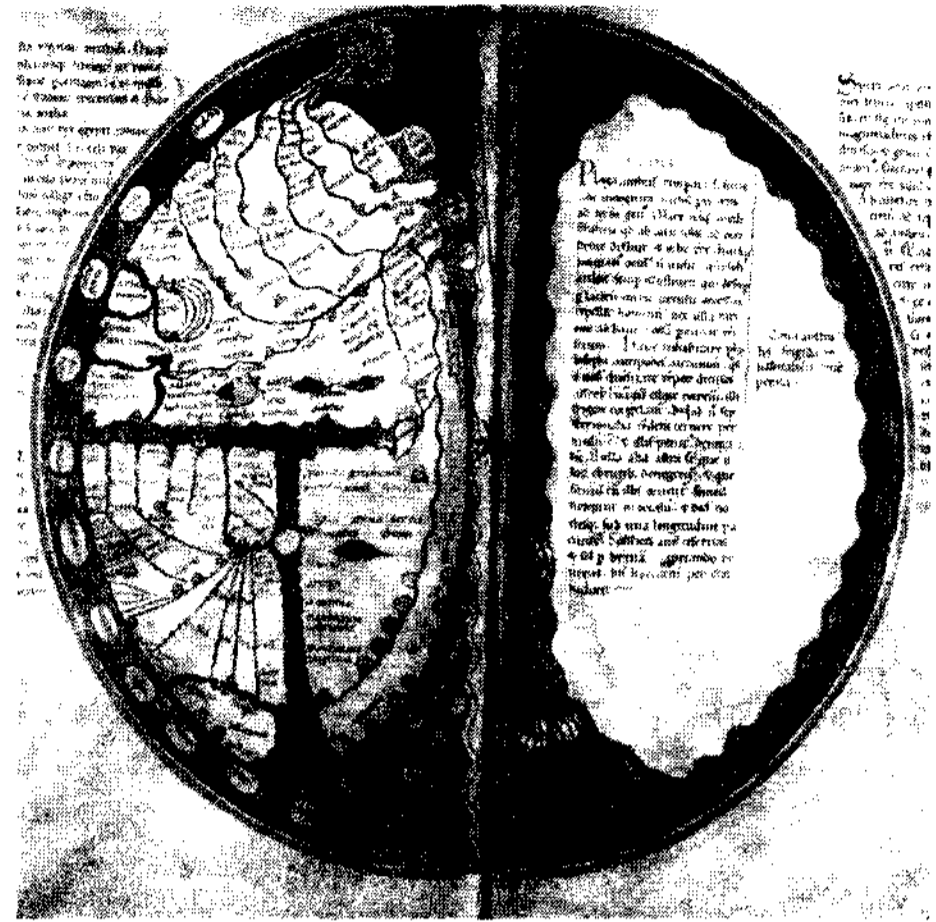


그림 3. 『Liber Floridus』(1120)의 지상낙원<sup>21)</sup>

자료: Lecoq(1987)

그의 지도에서 낙원은 대양에 의해 인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나, 강을 통해 인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지상낙원에 인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낙원은 여전히 존재하며 강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하고 풍요한 문화 건설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는 동쪽에 위치한 낙원에서 발원한 네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 다시 육지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지도에 표시했는데, 지구의 동쪽과 남쪽은 고도가 낮은 반면 북쪽과 서쪽은 높아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급하게 흐르는 반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나일 강은 느리게 흐른다고 기술하였다(그림 2). 코스마스의 지도에서의 낙원 표현이 뒤에서 살펴 볼 다른 지도와 완전히 다른 것은 그가 동로마지역에 거주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외쿠메네와 분리되어 있지만 대륙이 아닌 섬의 형태로 표현하는 지도이다. 대표적인 지도로는 『Sawley 지도』(12세기 후반)와 람베르(Lambert of Saint-Omer)의 『Liber Floridus』(1120), 『Hereford 지도』(1300)가 있다(Harvey, 1997; Lecoq, 1987; Moir, 1970). 『Liber Floridus』에서는 외쿠메네가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구는 북쪽과 남쪽의 두 반구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3).<sup>20)</sup> 그리고 낙원은 인도의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측에 위치한 대륙은 온화한 남쪽의 대륙으로 아담의 자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낙원에 에녹과 엘리

아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들이 낙원에 거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불기둥을 낙원 주변에 그려서 낙원이 대양과 불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낙원과 인간을 연결하는 끈은 외쿠메네에 물을 공급하는 네 강으로 표시하는데, 람베르는 이 네 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기혼은 나일이라 불리며 에티오피아에 물을 공급한다. 비손은 인도의 강으로 많은 사람이 갠지스라 부른다. 유프라테스는 아라비아의 강으로 바빌론을 가로질러 메소포타미아를 흐른다. 티그리스는 페르시아의 강으로 메디아를 가로 지른다(Lecoq, 1987).

세 번째 유형은 외쿠메네 내에 낙원을 위치시킨 지도로 인도 또는 내륙 지역에 위치시킨 경우이다. 중세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과 관련한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는 직접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sup>22)</sup> 유대 묵시문학의 하나이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의 역사를 재구성한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에 의하면 노아(Noah)가 셈(Shem)에게 아시아를 함(Ham)에게는 아프리카를 그리고 야벳(Japhet)에게 유럽을 나누어주게 된다. 셈은 가장 좋은 땅을 상속 받았는데, 북쪽 경계는 돈 강(the Don)이며 남쪽 경계는 오늘날의 나일 강에 해당하는 기혼이다. 아시아는 동쪽에 에덴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시온산(Mount Zion), 그리고 남쪽에는 시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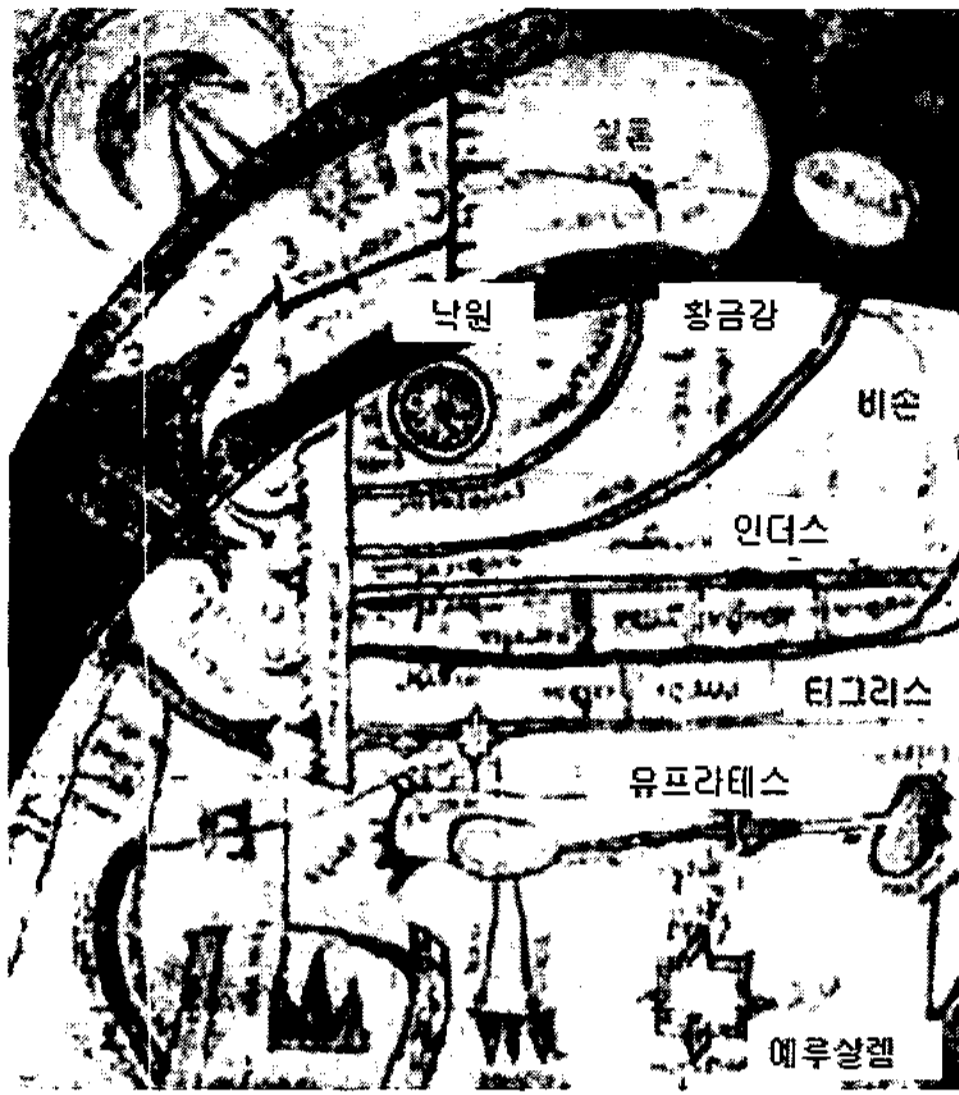


그림 4. 『유사 이시도루스 지도』(763)의 지상낙원  
 자료: Barber(2005), 수정·편집

(Mount Sinai)이 위치한다(Scott, 2002).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표시된 지도를 일반적으로 『이시도루스 지도(Isidorian Map)』라 부르는데, 7세기 이시도루스의 저서 『어원학』의 일부 필사본들에 이들 지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Edson, 1997). 이시도루스 유형의 지도에서는 낙원이 외쿠메네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외쿠메네의 어디에 낙원을 위치시켰을까? 당연히 『창세기』 2장 8절에 언급된 동쪽이지만, 이시도루스는 동쪽이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지점을 명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플리니우스의 『박물지(Natural History)』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가장 동쪽 지역이 인도였으므로(Bostock and Riley, 1855; Healy, 2004), 지상낙원이 인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했다. 이시도루스는 낙원을 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간주하였는데, 『어원학』의 아시아 편에서 아시아를 소개하면서 “아시아는 많은 지역과 지방을 포괄한다. 나는 그 장소들을 낙원부터 시작하여 간략히 기재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다(Throop, 2005). 그림 4의 지도는 한때 이시도루스의 지도로 알려져 있었으나 후대에 아니라고 판명되어 지금은 『유사 이시도루스 지도(Pseudo-Isidorian map)』로 불리는 763년경에 제작된 지도인데 낙원을

실론과 마주보게 위치시키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인도의 북쪽이나 동쪽에 낙원을 위치시킨 지도이다. 776년경 제작된 비아투스(Beatus of Liébana)의 지도(그림 5)에서는 아담과 이브, 생명나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을 그려서 낙원을 표현하는데 낙원을 코카서스(Caucasus), 아시리아, 페르시아, 갈대아(Chaldea), 그리고 인도 사이의 지역 즉 인도의 북쪽 지역에 낙원을 위치시킨다(Williams, 1997). 나중에 제작된 『Ebsdorf 지도』(1235-40), 『Psalter 지도』(1265), 『Evesham 지도』(1415)에서는 인도 동쪽에 낙원을 위치시키는데, 거리와 방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중세 세계지도의 전통에서는 인도의 북쪽과 동쪽과 같은 지도상에서의 방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쿠메네 내에 낙원을 위치시켰다하더라도 이것이 낙원에 인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아프리카에 낙원을 위치시킨 경우이다. 현재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구분과는 달리 중세인들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 에티오피아를 인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인도인이라 부르기도 하였다(Wright, 1965).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나일 강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 역시 결국은 부정하였지만 낙원이 적도상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낙원을 위치시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낙원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한 또 하나의 요인은 기혼을 나일 강이라 생각한 것이다. 나일 강의 유로에 대한 이전의 생각 즉 나일 강이 지상낙원에서 발원하여 대양에 스며들고 홍해 근처에서 다시 솟아나서 서쪽으로 흐른 다음 상이집트(Upper Egypt)에서 흘러나온다는 견해는 15세기에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Relaño, 2004). 그리고 낙원이 위치하는 동쪽 역시 15세기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됨에 따라 낙원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로 옮겨지게 되었다. 비르가(Albertin De Virga)의 1411년 지도에서는 남아프리카에 낙원이 위치하며, 비앙코(Andrea Bianco)의 1436년 지도에서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다. 그리고 마기올로(Vesconte Maggiolo)의 1512년 지도(그림 13)에서는 나일 강이 발원한다고 생각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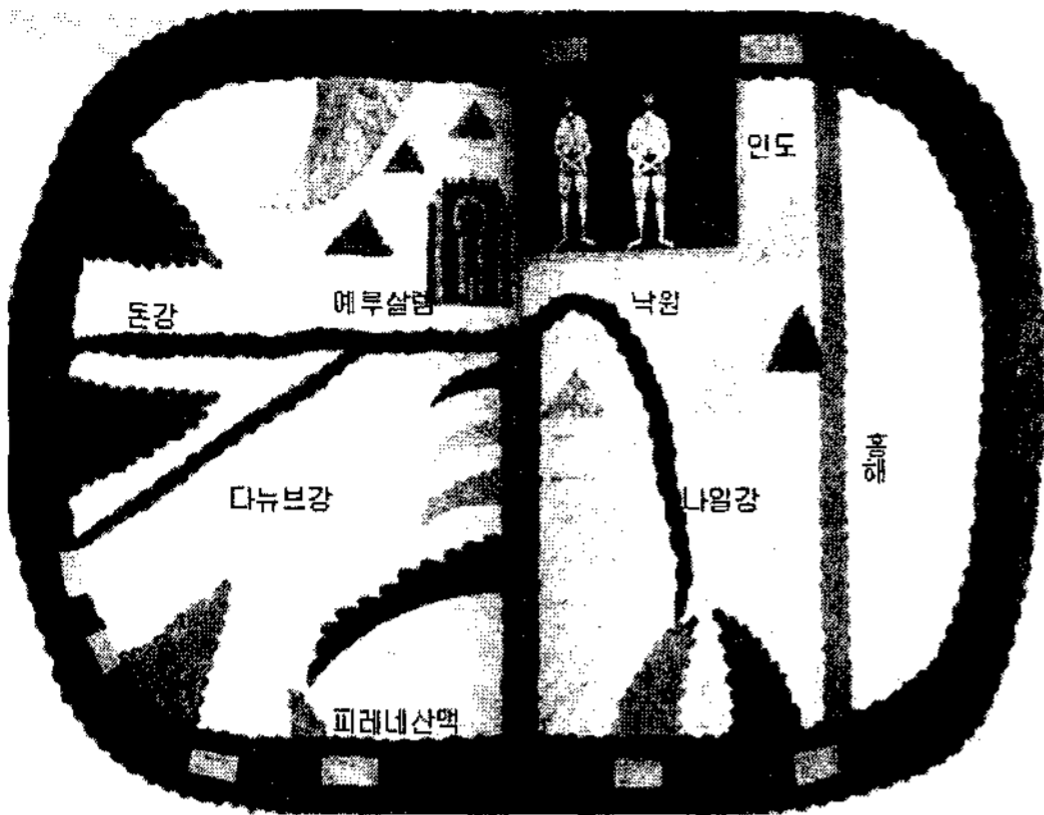


그림 5. 『비아투스 지도』(1776)  
자료: Barber(2005), 수정·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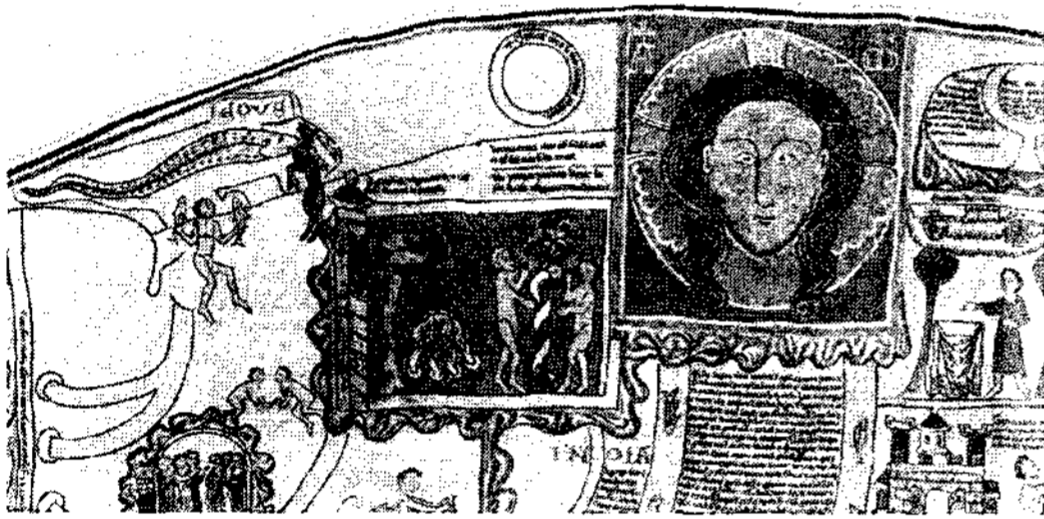


그림 6. 『Ebsdorf 지도』(1235-40)의 낙원  
자료: <http://12koerbe.de/henkaipan/mun-om.htm>

아프리카 중남부지역에 낙원을 위치시키고 있다.

## (2) 지상낙원의 표현

중세지도는 낙원의 내부 모습은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낙원의 내부 구조는 『창세기』 2장 9절에 의지하여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떤 시대에도 지상낙원에 대한 상세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간혹 예술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낙원의 내부 모습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기는 하였지만(Lippincott, 1990), 지도제작자들은 결코 성경에 기술된 이상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낙원의 내부 모습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낙원이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중세의 세계지도에 나타난 낙원의 표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각형이나 원과 같은 기하형태에 강의 흐름

을 나타내거나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이다. 『Vercelli 지도』(1270)에서는 사각형 안에 십자가 표시를 하여 낙원을 표현하고 있으며, 비아투스가 제작한 일부 지도(그림 9)에서는 낙원을 사각형으로 표현하되, 낙원에서 발원하는 네 강을 그린다. 꽃무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 이시도루스 지도』가 그 예이다(그림 4).

둘째, 낙원에 아담과 이브 그리고 선악의 나무나 생명수를 표시하고 담장과 같은 울타리를 표시하는 경우로 많은 지도에서 이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표현 방식에서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타락 당시의 시점에서 일어난 행위를 중심으로 묘사한다. 비아투스의 1086년 지도(그림 9), 『Psalter 지도』(그림 11), 『Ebstorf 지도』(그림 6), 『Evesham 지도』(그림 8)가 이에 해당한다. 『Ebstorf 지도』에서는 높은 산맥 뒤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그리고 네 강의 모습이 담긴 낙원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Evesham 지도』에서는 정교한 보좌를 배경으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서있는 배경에 나타나는 보좌는 Evesham 대수도원의 보좌로 보좌가 중세 미술에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의 섭리와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나타낸다(Barber, 1995).

셋째, 성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Walsperger가 1448년에 제작한 지도(그림 10)가 그 예인데 이것은 지상낙원에 미래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즉 과거의 낙원과 미래의 낙원을 중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Hereford 지도』(그림 7)에서는 원형의 성과 성문으로 낙원을 표시하였다. 이 지도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두 번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낙원에서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모습이다. 낙원의 성문이 닫혀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닫혀져 있는 문은 언젠가는 열린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은 낙원과 인간 간의 일시적인 분리를 의미한다.<sup>23)</sup> 에덴동산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샘은 세계의 중심점인 예루살렘과 은혜의 원천인 성모 마리아의 자궁을 상징하며(Birkholz, 2006),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네 강이 낙원 안에 그려져 있다. 15세기에 Leardo가 제작한 지도 역시 성벽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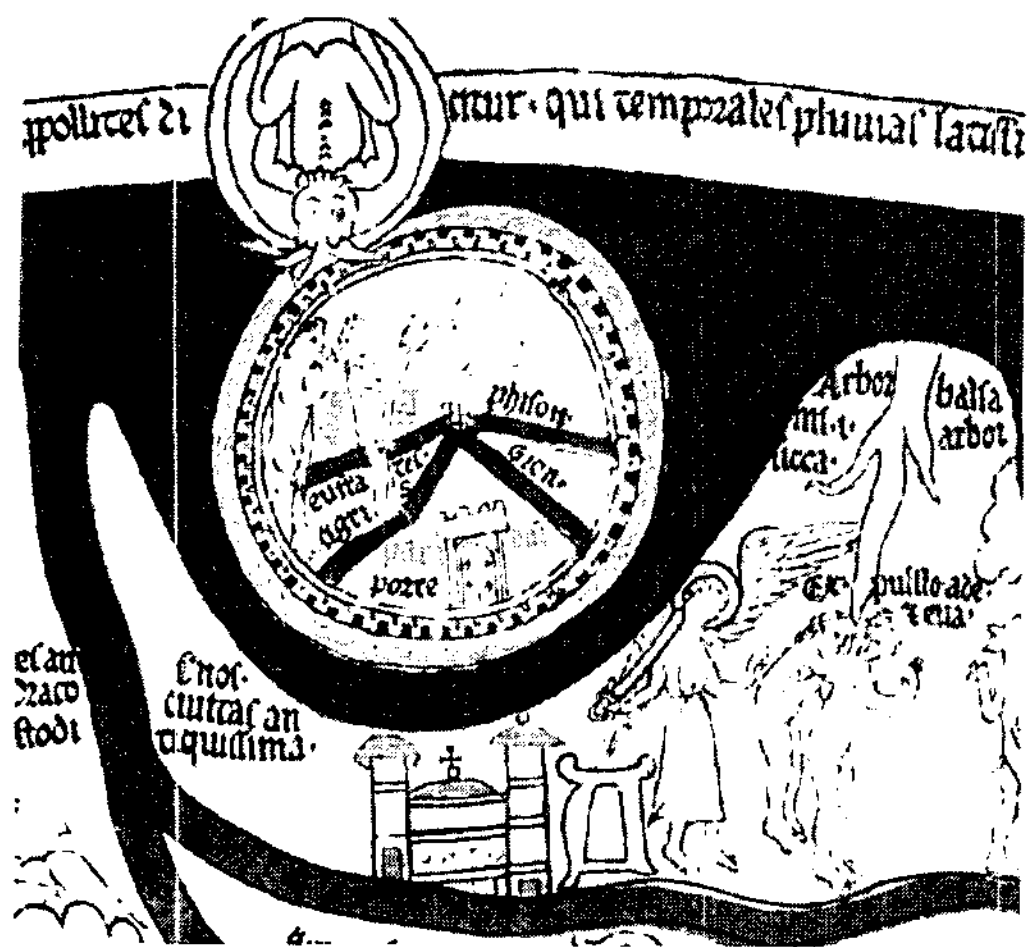


그림 7. 『Hereford 지도』(1300)의 낙원

자료: Birkholz(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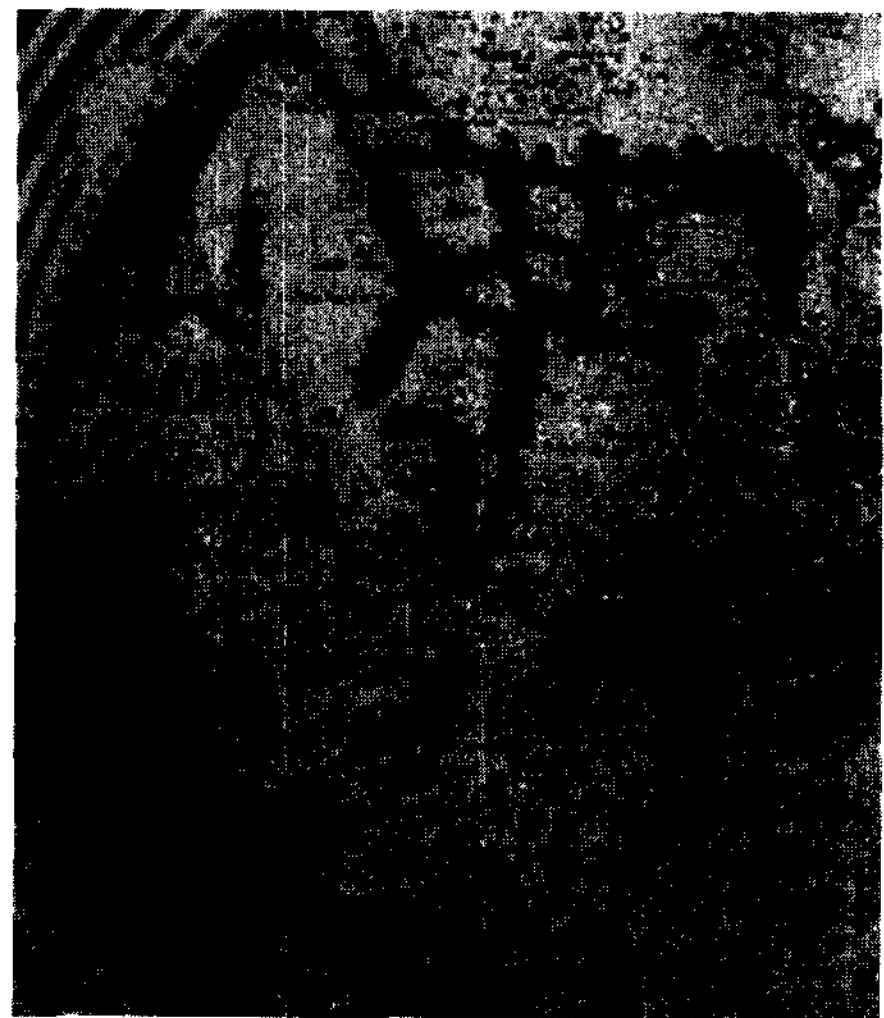


그림 10. 『Walsperger 지도』(1448)의 낙원

자료: Scafi(2006)



그림 8. 『Evesham 지도』(1415)의 낙원

자료: Whitfield(1994)



그림 9. 『Beatus 지도』(필사본, 1086)의 낙원

자료: <http://www.henry-davis.com/MAPS/EMwebpages/207H.html>

넷째, 낙원 안에 에녹과 엘리야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초보자를 위한 책이라는 뜻을 가진 『Rudimentum novitiorum』(1475)를 비롯한 후대의 많은 지도에서는 에녹, 엘리야를 아담과 이브 대신 표현한다.

이상과 같은 낙원의 표현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낙원이 지상세계와 분리됨은 모든 지도에서 확실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원하고 신의 영역에 속하는 낙원을 한정되고 제한된 인간세계를 나타내는 지도에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장소를 이 땅에 속한 장소로 그리는 것으로 결국 이 땅에 살고 있거나 하늘에 속한다는 기독교인의 신분 표현 즉 정체성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

### (3) 지상낙원에서 발원하는 강의 표현

필로는 낙원에서 흐르는 물이 지하로 스며든 다음 세계의 네 구석에서 다시 육지로 흘러들어 온다고 생각하였다. 낙원에서 발원하는 강을 지도화하는 것은 그 강들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사상으로서의 강의 지리적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필로는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을 기쁨의 의미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지명 자체가 '기쁨', '즐거움', '희락'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강은 네 개로 분화되는데, 각 강은 네 가지의

선, 즉 '신중함(prudence)', '용기(fortitude)', '절제(temperance)', 그리고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 그는 비손을 신중함, 기혼을 절제, 티그리스는 용기, 유프라테스는 정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필로의 이 비유적 해석을 그의 저서 『창세에 관하여: 마니교를 논박함』에서 채택하였다. 그는 금과 보석이 많은 지역을 흐르는 비손을 금과 보석의 '정련'과 '연마'와 관련하여 조심스러운 언어 사용과 연관된 비유적 의미 즉 '신중함'으로 해석하였다. 더운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기혼은 용기의 의미이며, 아시리아로 향해 흐르는 티그리스는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의 의미를,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이상의 세 가지 미덕을 모두 갖추고 조화롭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정의'라 해석하였다(Roland and Teska, 1991).

중세 세계지도에서는 낙원에서 발원하는 네 강을 인간과 신의 연결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였지만,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덕목의 의미로 강을 표현한 지도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네 강들만 지도에 그리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Psalter 지도』에서는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네 강에 갠지스 강을 추가하여 낙원에서 다섯 개의 강이 흐르는 것으로 묘사한다.<sup>24)</sup> 즉 『Psalter 지도』의 저자는 요세푸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유사 이시도루스 지도』에서는 낙원에 가장 가까운 쪽에 황금강(golden stream)을 그렸는데, 황금강을 그린 이유는 비손이 흐르는 지역인 하월라가 금과 보석이 풍부한 지역으로 『창세기』 2장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로시우스가 황금강이라고 지칭하는 보석의 강이 동쪽에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그림 12). 그리고 비손과 기혼에 대한 해석 역시 지도 저자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8세기의 『Albi 지도』에서는 기혼은 나일 강으로 표시하나 비손은 갠지스가 아닌 다뉴브 강으로 표시한다. 비손을 다뉴브 강이라 생각한 교부로는 에프라렘이 있는데(Brock, 1990), 『Albi 지도』의 저자는 에프라렘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일부 지도에서는 기혼을 나일 강이 아닌 인더스 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강은 또 낙원을 직접 지도상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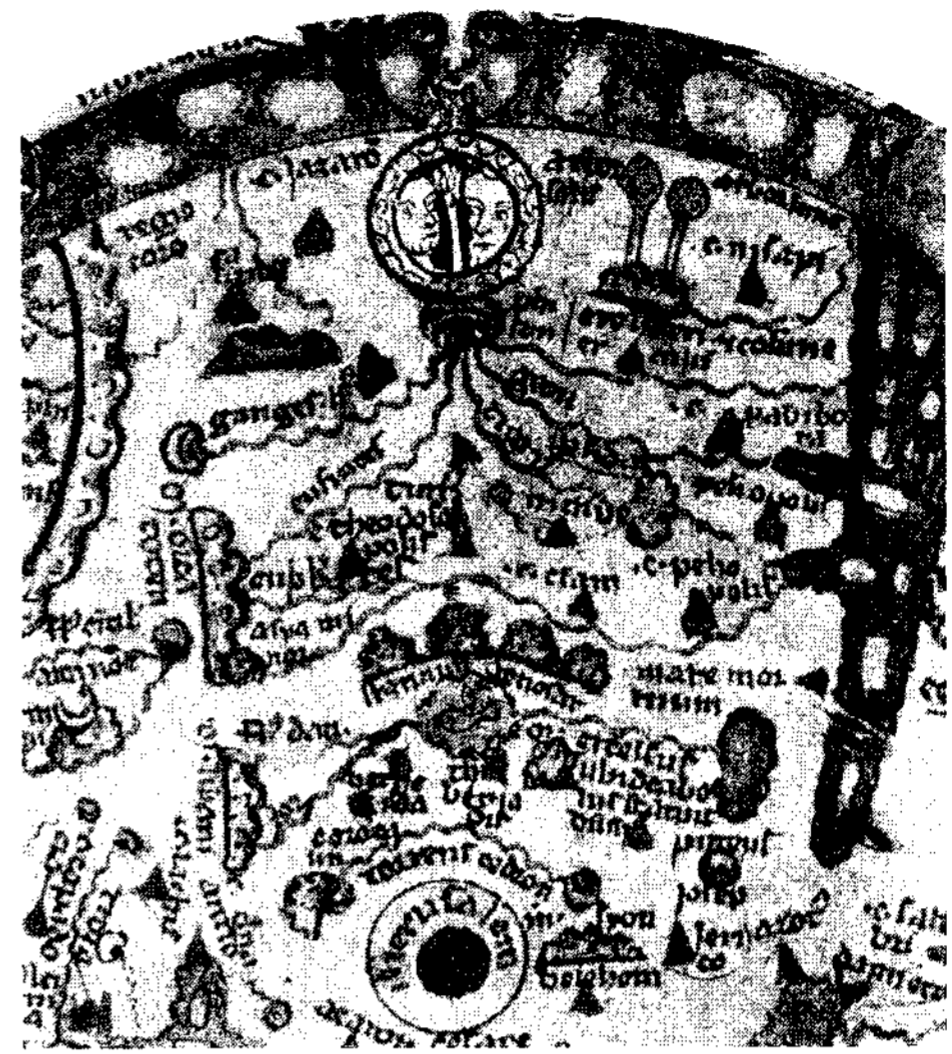


그림 11. 『Psalter 지도』(1265)의 낙원과 강  
자료: Short(2003)

낙원의 존재를 암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낙원을 그리지 않고 낙원의 존재를 표시한 대표적인 지도가 『Cotton 지도』(1025-50)이다. 이 지도는 낙원은 그리지 않지만 낙원에서 발원한 네 강은 표기하고 되고 있다. 특히 비손을 낙원의 강(flumen paradisi)으로 표기하여 낙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 (4) 지상낙원의 고도

세계지도에 표기된 낙원의 위치를 통해 낙원이 위치한 고도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지도의 축척도 문제가 되지만 당시의 지도가 고도 자료에 대한 근거가 없이 관계적 위치만 고려하여 지리적 사상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중세학자들은 낙원이 높은 고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다. 『에스겔서』 28장 13-14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와 같이 높은 산을 거룩한 곳으로 묘사하는데, 낙원 역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중세학자들의 생각이었다. 더구나 높은 곳에 위치해야 노아의 대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고, 인간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세학자들 중 상당수는 낙원이 달의 높이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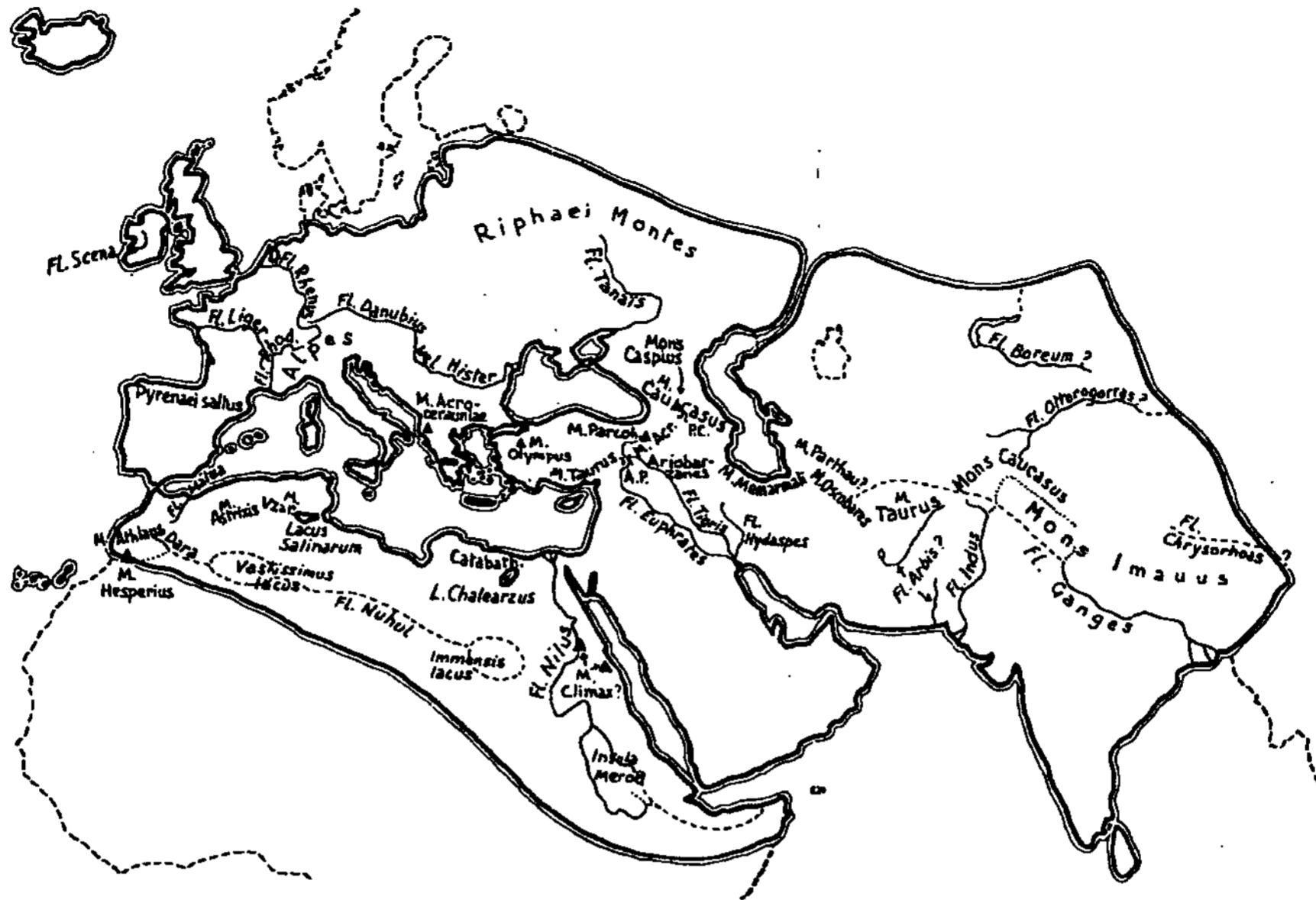


그림 12. 오로시우스의 지리정보를 재구성한 지도

자료: Janvier(1982)

가진 학자로는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와 제르바즈(Gervase of Tilbury)가 있다(Delumeau, 2000). 단테 역시 연옥산의 정상에 낙원을 위치시켰다. 더구나 적도상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더운 지역에 낙원을 위치시키더라도 고도가 높으면 온화한 기후를 가지는 낙원의 기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중세 세계지도에서 낙원이 위치한 인도 동쪽 또는 인도 주변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고원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많은 지도에서 낙원 주변에 토러스(Taurus) 산맥과 코카서스(Caucasus) 산맥을 그려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터키 남부에 위치한 토러스 산맥과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위치한 코카서스 산맥을 낙원 근처에 위치시킨 이유는 당시의 지리정보가 부족해 중세인들이 이 산맥들의 위치를 실제 위치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인 오로시우스의 역사서이다. 오로시우스의 역사서는 중세 세계지도 제작을 위한 세계의 형태, 대륙의 크기, 수문, 지형 묘사의 가장 기본이 된 저서인데(Santarem, 1849), 일례로 『Hereford 지도』에서도 오로시우스의 저서를 인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오로시우스는 이 산맥들의 위치를 혼동하였다. 그림 12는 오로시우스의 저서에 기재된 지리정보를 이용해 재구성한 지도인데 토러스 산맥과 코카서스 산맥이 실제 위치와 상상의 위치 두 군데 모두 표시되어 있다(Janvier, 1982). 이 지도에서는 파미르 고원 동쪽에 낙원의 강인 보석의 강(Fl. Chrysorhoas)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상에서 낙원의 위치를 고도와 관련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5세기 이후 발행된 낙원을 아프리카에 위치시킨 지도에서는 산악지역에 대체적으로 낙원을 위치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1450-60경에 제작된 『모데나의 카탈란 지도』(Catalan World Map at Modena)에서는 아비시니아 고원(Abyssinian Plateau)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 낙원을 표시하며, 마기올로(Vesconte Maggiolo)의 1512년 지도에서는 나일 강이 발원한다고 생각되던 중앙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 산의 모습으로 낙원을 그려 표현한다(그림 13).

#### 4.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상낙원

14세기부터 지상낙원은 점차로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지도에서 낙원을 그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낙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낙원을 직접 표기하는 대신 낙원에서 발원하는 강만 그리거나 아니면 낙원 주위의 지명 예를 들어 하월라를 표기하여 낙원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지도가 사누도(Marino Sanudo)와 베스콘티(Pietro Vesconte)가 1321년에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동쪽을 여전히 위로 정치하며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통적인 세계지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위에 항정선을 표기하여 포르톨라노 지도의 성격을 세계지도에 가미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낙원을 표기하지 않지만 인더스 강에 기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부여하고 낙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사누도는 동방의 기독교 성지수복이라는 열렬한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며 이 지도 역시 그 사명을 위해 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낙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도에서 낙원을 생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다(Edson, 2007). 그리고 크레스크(Abraham Cresques)가 그린 『Catalan 아틀라스』(1375-78)에도 항정선은 표기되어 있지만 낙원은 생략되어 있다.

낙원을 묘사한 중세지도와 르네상스 지도의 전환을 나타내는 이정표적인 지도가 있는데 『Fra Mauro 지도』이다(그림 14). 프라모로가 1450년 제작한 지도는 남쪽을 위로 정치하였는데, 지도 안에 직접 낙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지도는 지도가 종교와 분리되고 과학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낙원이 지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지도 외곽에 포함된 것은 중세의 지도 전통을 깨뜨린 것이다(Cattaneo, 2003; Marcon, 2006). 지도 제작 스타일 역시 이전까지 유행하던 것이 아니며, 글 역시 라틴어 대신 베니스 방언으로 표기하였다는 데서 중요한 지도 제작의 전기가 된다. 그는 낙원을 지도 외곽의 장식 부분에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기에서 낙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낙원에 대한 그림은 『창세기』에 언

급된 그대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역시 스스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시도루스의 전통을 따라 그의 지도를 제작했다고 언급하여 그의 지도가 중세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와 더불어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와 포르투갈 탐험가들로 부터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동시에 수록하였으며, 예루살렘을 지도의 중심이 아닌 서쪽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y)의 경위도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표기할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중세에서 근대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지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상에서 낙원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요인은 포르톨라노 해도의 기법 도입에 따른 지도 제작 마인드의 변화이다. 중세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동일한 지도제작자가 세계지도와 포르톨라노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실용적인 지도인 포르톨라노 해도를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지도 제작에서도 실용의 마인드를 도입하게 되고 이는 낙원의 삭제로 이어졌다. 실제로 세계지도를 제작할 때 항정선을 먼저 그린 다음 세계의 윤곽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낙원 표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스콘티(Pietro Vesconti)를 들 수 있다. 베니스의 지도제작자 베스콘티는 1310년에서 1330년 사이 많은 해도와 아틀라스를 제작했는데 1321년에 제작한 세계지도에서는 항정선을 표시하였으나 낙원은 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요인은 15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프톨레마이오스의 재발견이다(Brown, 1977; Moffitt, 1993). 프톨레마이오스는 경위도 좌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소의 의미에 따른 계층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정확한 위치에 장소를 입지시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 해서 크게 그리지 않았다. 따라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제작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은 낙원에 대한 경위도 좌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간의 특정 지역에 낙원을 입지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고 낙원이나 예루살렘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 역시 어려워지게 되었다. 15세기 지도

제작자인 비안코(Andrea Bianco)는 전통적인 중세 세계지도도 제작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유형의 지도도 제작하였다(Edson, 2007).

세 번째 요인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와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480-1521)과 같은 탐험가에 의한 지리정보의 확충이다. 많은 여행자들의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에 더 이상 낙원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네 번째 요인은 낙원을 지리적 실체가 아닌 종교적 비유로 해석하게 되는 신학적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15세기 신학자들은 여전히 아퀴나스를 추종했지만 에덴의 절대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스킨라 철학자 빌(Gabriel Biel, 1410-1495)은 동쪽은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낙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cafi, 2006). 즉 당시의 신학경향은 성경의 비유적 해석을 강조하여 낙원을 지리적 장소가 아닌 비유적 장소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즉 동쪽에 위치한 물리적 장소라기 보다 인간 구속사의 비유적 의미를 가진 장소로 강조하였다. 이 경향은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창세기 주석』에서 지상낙원은 존재하였으나 노아의 홍수에 의해 사라졌거나 인간의 원죄에 의해 더 이상 낙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낙원의 위치를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낙원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비유적 의미만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인간이 알려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Luther, 1958). 또 다른 종교개혁가 칼뱅(Jean Calvin, 1509-1564)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인간의 원죄만 아니면 낙원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는 낙원이 공기 중의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 지방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낙원의 네 강에 대해 언급하며 기혼을 나일 강 그리고 비손을 갠지스 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수로 해석에 의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에덴동산과 낙원을 흐르는 기혼과 비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회피한다. 왜냐하면 칼뱅이 『창세기 주석』을 기술한 목적은 신의

창조 질서, 인간을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신의 선택,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인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결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신과 인간의 관계회복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므로 낙원의 지리적 특성은 그의 주 관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Calvin, 2001). 그러나 그가 에덴동산이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성경지도의 형태로 1560년 제작한 사실을 고려할 때(Watts, 2007), 성경 해석에서의 낙원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에덴동산의 위치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더 이상 낙원을 지도상에 위치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김에 따라 지상낙원의 지도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양상은 전통적 방식으로 계속 낙원을 지도화하는 것이다. 세계지도는 지역지도와 달리 한번 특정한 도법의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유형의 지도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세계지도를 세계관이 바뀐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낙원이 사라진 세계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지도 제작자들은 여전히 낙원을 지도화하였다. 리아르도(Giovanni Leardo)의 1442년 지도 및 발스페르게(Andrea Walsperger)의 1448년 지도, 그리고 『Rudimentum novitiorum』(1475)들에서는 여전히 낙원이 지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자들이 과연 낙원이 여전히 지상에 존재해서 지도에 낙원을 표현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낙원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도 낙원을 표시한 것이라면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두 번째 양상은 지리정보의 획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미지의 장소에 낙원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 미지의 장소로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아프리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남반구의 다른 지역에 낙원을 위치시킨 지도도 있는데, 콜럼부스에 의해 사용된 지도 저자 미상의 해도(1492)에서는 낙원이 동중국해의 적도상에 위치한다.

세 번째 방법은 더 이상 낙원을 지도상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가 불분명한 『Genose 지도』(1457)에

## 5. 결론

모든 세계지도는 세계를 다시 창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세계지도는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게 세계를 표현하였다. 중세 세계지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리적 지식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지도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었으며 그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과 천지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는데 인간이 창조된 곳이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이기 때문에 결국 에덴동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동쪽에서 시작한 인간 역사는 점차 서진하여 더 이상 갈수 없다고 여겨지던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마치고 인간 세상의 종말이 온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지리적 관점은 이시도루스를 비롯한 후대 학자들에게 전승되었는데, 이들의 지리적 관점은 중세 천년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세 세계지도 제작의 근간이 되는 지리정보 역시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인 오로시우스에 의지하므로, 결국 중세 세계지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 장소인 지상낙원은 인간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므로 지도상에서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대양 너머의 대륙이나 섬, 사막이나 산맥에 의해 둘러싸여 인간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낙원은 인간 세상과 분리된 곳이지만 연결된 곳이기도 하다. 그 연결은 낙원에서 발원한 네 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강이 인간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공급한다. 낙원과 낙원에서 발원하는 강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낙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 의미도 가지지만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비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중세인들에게 낙원은 영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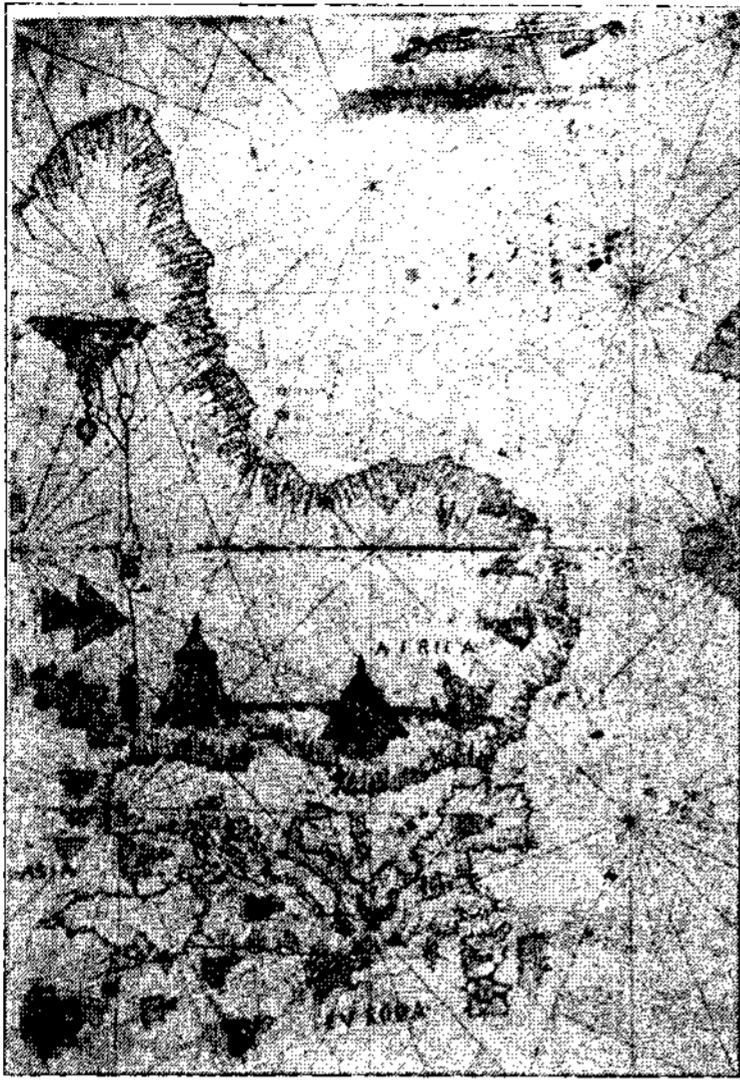


그림 13. 마기올로의 1512년 지도의 지상낙원

자료: [www.henry-davis.com/MAPS/Ren/Ren1/316.1.html](http://www.henry-davis.com/MAPS/Ren/Ren1/316.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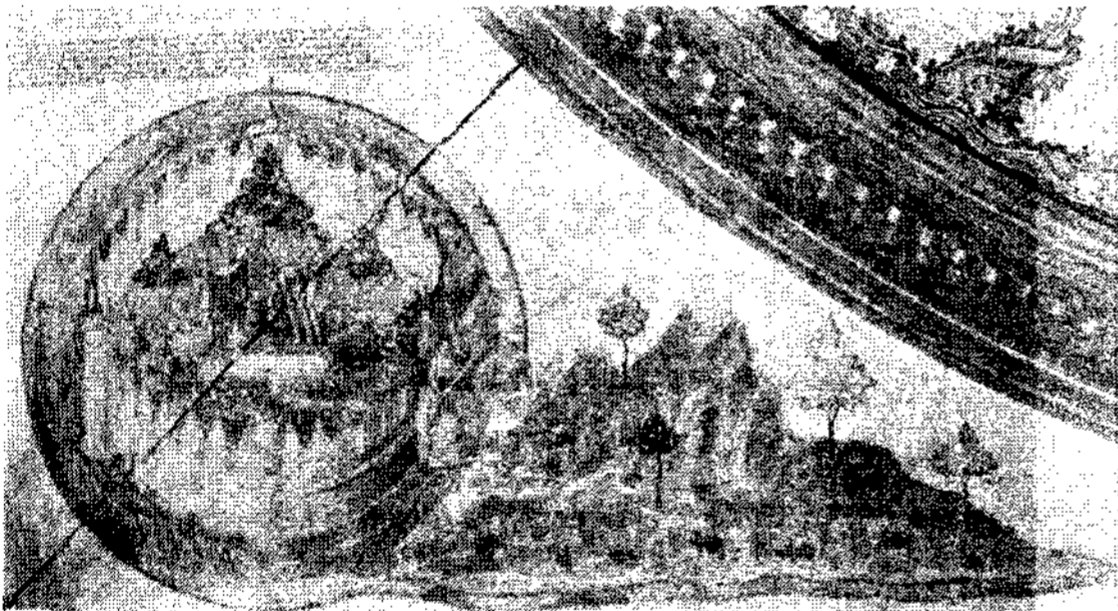


그림 14. 『Fra Mauro 지도』(1450)의 지상낙원

자료: Whitfield(1994)

서는 낙원은 동아프리카에 있다고 추정되지만, 저자 자신은 지도에 낙원을 표기하고 싶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Scafi, 2006).

15세기나 16세기 이후에도 해도에서는 장식으로서 성서의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종교적 색채가 바로 사라지는는 않았지만(Astengo, 2007), 적어도 장소로서의 낙원은 더 이상 지도상에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에 더욱 가속되고 지도제작은 보다 과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것의 실상'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보이지 않는 낙원을 믿음으로 지도화했다. 그리고 한번 지도화된 이후에는 지도가 영토를 변화시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당연히 존재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구조를 고착시켰다. 즉 이제 지상낙원은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같이 먼 곳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가 된 것이다. 다른 차이가 있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지상낙원에는 결코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 문화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신학적인 것이었다. 특별히 에덴동산을 세계지도에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결정이며, 신앙의 문제였다. 성경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신의 계시이므로, 성경에 언급된 낙원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였다. 에덴동산이 포함된 지도는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창조에 대한 초월적 믿음이었으며 인간 이성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낙원의 지도화는 신앙적인 행위로 신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중세인들은 현대인과 완전히 다른 과학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앙이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과학을 인정하였다(Grant, 1986). 과학은 신앙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린 지도라도 당시로서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관점에서 중세 세계지도를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Woodward, 1985). 중세인들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지역지도에서는 지상낙원을 표기하지 않았다.

지도는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다. 중세의 지도제작자들은 동시대인들이 믿던 바를 지도화했다. 중세에 성상이 신도들로 하여금 빛으로 가득 찬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하였듯이, 중세 세계지도의 지상낙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을 보도록 하였고, 그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데 기여했다.

註

- 1) 날개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살아있는 피조물(『에스겔서』 1장 5-12).
- 2) 낙원이란 용어가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횡수가 적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낙원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렵다.
- 3) 말세에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땅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요한계시록』 20장 7-10절).
- 4) 이 기둥에는 “더 이상 가지 말 것(ne plus ultra)”이라는 비명이 새겨져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박종현·김영균, 2000).
- 5) 국내에 소개된 헤르도투스의 『역사』는 삼성출판사에서 1982년 홍기종에 의해 번역된 것이 있으나, 여기에는 TO 지도가 기술된 제 4권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제 4권의 내용은 다음에 표기한 괄호 안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http://www.sacred-texts.com/cla/hh/hh4040.htm>).
- 6) 서로마제국의 멸망이 일어난 5세기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이의 기간을 중세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7)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방에 해당되나 중세에는 인도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 8) 종종 에티오피아로 번역되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이집트 남쪽(『에스겔서』 29장 10절)의 나일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누비안 왕국(Nubian)과 동일시된다(『이사야』 18:1). 아비시니아 고원에 위치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는 차이가 있다(아가페 출판사, 1991).
- 9) 이들 강에 대해서는 에덴동산의 위치 자체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10) 스콜라 철학자들은 교부들이 가졌던 믿음과 이성이라는 긴장과 더불어 교부적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이의 긴장, 그리고 기독교적 전통과 이슬람, 유대교의 신학 사이의 긴장을 가지고서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여러 학파들이 형성되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대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 프란체스코 학파와 달리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해석을 가한 도미니코 학파였다.
- 11) 중세의 공간 영역을 한정하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 베이컨(Francis Bacon)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세계관과 결별하고 새로운 학문 탐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한 『신기관(Novum Organum)』의 표지 그림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벗어나 향해하는 기선의 모습을 그린 것은 더 이상 세계가 중세의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강서, 2007).

- 12) 엄밀히 말하면 모든 중세의 세계지도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제작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후대를 나타내는 세계지도로 흔히 말하는 마크로비우스(Macrobios) 형의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은 북쪽을 주로 지도의 위로 정치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지도가 역사적 시대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거주공간인 북반구만 기술하는데 반해, 지구 전체를 묘사하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지도의 유형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의 반영 정도 역시 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후대를 나타내는 세계지도는 주제도이므로 일반도의 역할을 하는 일반 세계지도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 13) 지브롤터 해협을 너무 자구 그대로 해석하여, 실제로 이 해협을 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아프리카 서안의 카나리아 제도(Canaria Is.)에 대한 기술이 중세 지리지에 언급된다(Kimble, 1968).
- 14) 이 지도에서는 낙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스케치한 흔적이 있다. 채색하지 않은 것은 제작과정의 실수이다.
- 15) 천지창조를 완성한 후의 칠 일째는 안식의 날이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인간역사에 있어서도 일곱째 시대는 인간역사가 마무리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 인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16) 중세 세계지도에 비견되는 왜상지도의 사례로는 국민총생산에 의해 국가별 면적을 변형시킨 지도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공간적 범위는 실제 국가의 경계와는 관련이 없으나 국가들 간의 인접성, 즉 상하좌우 관계는 유지된다.
- 17) 550년경에 제작된 『Madaba Mosaic』는 동쪽을 위로 정치한 지도 중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이다.
- 18) TO 지도 자체는 기독교 전통이 아닌 그리스 전통의 지도이다.
- 19) 성막은 이스라엘에서의 이동 성전인 장막에 대한 명칭으로 폭이 22.5m 길이가 45m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이 직사각형은 두 개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한국기독교학생회, 2001).
- 20)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도는 1250-1275년 사이에 제작된 필사본의 지도이다.
- 21) 중앙에서 약간 좌측 상단에 위치한 섬이 지상낙원이다.
- 22) 『역대상』 1장에 노아의 세 아들과 관련해 대륙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 23) 이 해석 역시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전제한 것이다.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은 문이 아니다.
- 24) 기혼이 나일 강, 비손이 갠지스 강에 해당한다는 요세푸스의 중세 생각은 16세기말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Almond, 1999).

## 文獻

- 강영안, 1995, 기호와 진실, 한국기호학회 역음, 문화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서울.
- 김운찬(역), 2007, 신곡, 열린 책들, 서울(Dante A., 1321, *La Divina Commedia*).
- 김진태(역), 2003, 중세 스콜라 철학 - 신앙과 이성 사이의 조화와 갈등-,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서울(Pieper, J., 1960, *Scholastik - Gestalten und Probleme der mittelalterlichen philosophie*, Koesel Verlag, Munich).
- 박종현 · 김영균, 2000,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서광사, 서울.
- 박지형(역), 1996, 르네상스 철학에서의 개체와 우주, 민음사, 서울(Cassirer, E., 1987, *Individuum und Kosmos in der philosophie der Renaissance*, Darmstadt).
- 성염(역), 2004, 신국론, 제 11~18권, 분도출판사, 칠곡(Augustinus. A., *De Civitate Dei contra paganos libri viginti duo XI-X VIII*).
- 아가페 출판사, 1991,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 이강서(역), 2007, 지중해 철학기행, 효형출판, 서울(Held, K., 1990, *Treffpunkt Platon*, Philipp Reclam Verlag GMBH, Ditzingen).
- 이재룡 · 이동익 · 조규만(역), 1993,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서울(Sasso G.D. Coggi, R., 1989, *Compendio della Somma Teologica di San Tommaso d'Auino*,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Bologna).
- 한국기독교학생회, 2001, 성경배경주석,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Walton, J., Matthews, V., Chavalas, M. (ed.), 2000,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 Almond, Ph.C., 1999, *Adam and Eve in Seventeenth-century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tengeo, C., 2007, The Renaissance Chart Tradition in The Mediterranean in Woodward, D.(ed.),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European Renaiss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arber, P., 1995, *The Evesham World Map: A Late Medieval English View of God and the World*,

- Imago Mundi*, 47, 13-33.
- Barber, P., 2005, *The Map Book*, Walker & Company, New York.
- Beazley, C.R., 1899, New Light on Some Medieval Maps, *The Geographical Journal*, 14, 620-29.
- Birkholz, D., 2006, Mapping Medieval Utopia: Exercises in Restraint,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36, 585-618.
- Bostock, J. and Riley, H.T., 1855, *Natural History of Pliny*, J. Billing, London.
- Brock, S., 1990, St.Ephrem the Syrian, *Hymns on Paradise*, St Vladimir's seminary press, New York.
- Brown, L.A., 1977, *The Story of Maps*, Dover Publications, New York.
- Burgwinkle, W., 2006, Utopia and Its Use: Twelfth-Century Romance and History,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36(3), 539-560.
- Calvin, J., 2001, *Genesis*, Crosseay Books, Wheaton.
- Cattaneo, A., 2003, God in His World: The Earthly Paradise in Fra Mauro's Mappamundi illuminated by Leonardo Bellini, *Imago Mundi*, 55(1), 97-102.
- Crawford, O.G.S., 1949, Some Medieval Theories about the Nile Source, *The Geographical Journal*, 114(1/3), 6-23.
- Delumeau, J., 2000, *History of Paradis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 Dilke, O.A.W., 1987, Cartography in the Byzantine Empire, in Harley, J.B and Woodward, D. (ed.),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Prehistoric, Ancient and Medieval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Duncan, J.E., 1972, *Milton's Earthly Paradi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Edson, E., 1997, *Mapping time and space: How medieval mapmakers viewed their world*, The British Library, London.
- Edson, E., 2007, *The World Map 1300-149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Ehrenberg, R.E., 2005, *Mapping the World: An Illustrated History of Cartography*, National Geographic, Washington, D.C.
- Gordon, B.L., 1971, Sacred Directions, Orientation, and the Top of the Map, *History of Religions*, 10(3), 211-227.
- Grant, E., 1986, Science and Theology in the Middle Ages, in Lindberg, D.C. and Numbers, R.L. (ed.), *God & N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Harris, N., 2002, *Mapping the World*, Thunder Bay Press, San Diego.
- Hart, J.H.A., 1904, Philo of Alexandria, *The Jewish Quarterly Review*, 17(1), 78-122.
- Harvey, P.D.A., 1997, The Sawley Map(Henry of Mainz) and other world maps in Twelfth -Century England, *Imago Mundi*, 49, 33-42.
- Healy, J.F., 2004, *Pliny the Elder Natural History*, Penguin books, London
- Hiatt, A., 2000, The Cartographic Imagination of Thomas Elmham, *Speculum*, 75(4), 859-886.
- Janvier, Y., 1982, *La Géographie d'Orose*, Les Belles Lettres, Paris.
- Kendall, C.B., 2008, *On Genesis BEDE*, Liverpool University Press, Liverpool.
- Kimble, G.H.T., 1968, *Geography in the Middle Ages*, Russel & Russel, London.
- Kitamura, K., 1988, Cosmas Indicopleustés et la figure de la terre in Desreumaux A. and Schmidt, F.(ed.), *Moïse Géographe*, J.Vrin, Paris.
- Kominko, M., 2005, The Map of Cosmas, the Albi Map and the Tradition of Ancient Geography, *Mediterranean Historical Review*, 20(2), 163-186.
- Lecoq, D., 1987, La Mappemonde du Liber floridus ou la vision du monde de Lambert de Saint-Omer, *Imago Mundi*, 39, 9-49.
- Lecoq, D., 1993, Mappemonde d'Henri de Mayence, in Duchet-Suchaux, G.(ed), *Iconographie médiévale: image, texte, contexte*, CNRS, Paris.
- Lippincott, K., 1990, Giovanni di Paolo's 'Creation of the World' and the Tradition of the 'Thema Mundi' in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Art, *The*

- Burlington Magazine*, 132(1048), 460-468.
- Luther, M., 1958,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1-5*, Concordia Publishing House, Saint Louis.
- Marcon, S., 2006, Leonardo Bellini and Fra Mauro's World Maps: The Earthly Paradise, in Falchetta, P.(ed.), *Fra Mauro's world map: with a commentary and translations of the inscriptions*, Brepols, Venezia.
- McKinzie, D.F., 1985, *Bibliography and the sociology of tex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offitt, J.F., 1993, Medieval Mappaemundi and Ptolemy's Chorographia, *Gesta*, 32(1), 59-68.
- Moir, A.L., 1970, *The World Map in Hereford Cathedral*, Hereford The Cathedral.
- Morse, V., 2007, The role of maps in later medieval society: twelfth to fourteenth century, in Woodward, D. (ed.),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European Renaiss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Relaño, F., 2004, Paradise in Africa The History of a Geographical Myth from its Origins in Medieval Thought to its Gradual Demise in Early Modern Europe, [http://www.sochistdisc.org/2004\\_articles/relano.htm](http://www.sochistdisc.org/2004_articles/relano.htm)
- Roland, J. and Teske, S.J., 1991, *St. Augustine on Genesis: 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and on the literal interpretation on Gen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C.
- Santarem, M.F., 1849, *Essai sur l'histoire de la cosmographie et de la cartographie pendant le moyenâge et sur les progrès de la géographie*, Maulde et Renou, Paris.
- Scafi, A., 2006, *Mapping Paradis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Scott, J.M., 2002, *Geography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hort, J.R., 2003, *The World through Maps*, Firefly Books, Toronto.
- Terkla, D., 2004, The Original Placement of the Hereford Mappa Mundi, *Imago Mundi*, 56(2), 131-51.
- Watts, P.M., 2007, The European Religious World View and its Influence on Mapping, in Woodward, D. (ed.),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European Renaiss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Whiston, W., 1987,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Hendrickson, Peabody.
- Whitfield, P., 1994, *The Image of the World*, Pomegranate Artbooks, San Francisco.
- Williams, J., 1997, Isidore, Orosius and the Beatus Map, *Imago Mundi*, 49, 7-32.
- Woodward, D., 1985, Reality, Symbolism, Time and Space in Medieval World Map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5, 510-21.
- Woodward, D., 1987, Medieval Mappaemundi, in Harley, J.B. and Woodward, D.(ed.),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Prehistoric, Ancient and Medieval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Wright, J.K., 1965, *The Geographical Lore at the Time of the Crusades: A Study in the History of Medieval Science and Tradition in Western Europ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reprint of 1925 edition.
- 교신: 정인철,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이메일: icjung@pusan.ac.kr, 전화: 051-510-2667)
- Correspondence: In-Chul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eon-Dong, Geumju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icjung@pusan.ac.kr, phone: +82-51-510-2667)

최초투고일 08. 06. 05

최종접수일 08. 06. 23